삼승법을 설한 '위음왕불'

〈三乘法〉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㉙ 위음왕불

그때 부처님께서 득대세보살마하살에게 이르셨다.

"그대 이제 마땅히 알아라. 만약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를 악한 말로 욕하고 비방하면, 큰 죄보를 받게 되는 것이 앞에서 말한 그대로이며, 이를 받아 지니는 사람이 얻는 공덕도 먼저 말한 바와 같아 눈 · 귀 · 코 · 혀 · 몸 · 의근이 청정하게 되느니라.

득대세여, 옛적 한량없고 가없는 불가사의한 아승지겁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위음왕 여래 · 응공 · 정변지 · 명행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조어장부 · 천인사 · 불세존이셨느니라. 겁의 이름은 이쇠(離衰), 나라 이름은 대성(大成)이었느니라.

그 위음왕 부처님이 그 세상에서 천신과 인간, 아수라를 위하여 법을 설하셨는데, 성문이 되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사제법(四諦法)을 설하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극복하여 열반에 이르도록 하고, 벽지불이 되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십이인연법(十二因緣法)을 설하고 보살들을 위해서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기 위한 육바라밀법(六派羅密法)을 설해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였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이 위음왕불 수명은 40만억나유타 항하사겁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겁의 수는 한 남섬부주의 작은 먼지 수와 같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겁의 수는 사천하의 작은 먼지 수와 같으니라. 그 부처님이 중생 이롭게 하시고 나서 열반에 드셨고, 정법 · 상법이 다하고 난 뒤, 이 국토에 다시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또한 이름이 위음왕 여래 · 응공 · 명행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조어장부 · 천인사 · 불세존이었느니라. 이렇게 차례로 2만억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모두 이름이 같았느니라."

'상불경보살품' 에 들어가면 먼저 위음왕불이 등장한다. 〈법화경〉에는 과거 무수겁 전의 부처님 명호가 많이 나온다. 〈화엄경〉은 수많은 보살들의 이름이 나오고 〈법화경〉은 부처님 이름이 많이 나온다. 위음왕불은 과거 장엄겁 이전의 공겁(空劫) 때의 부처님이신데 본초불(本初佛)이라 말하기도 한다. 본초불이란 밀교에서 주로 쓰던 용어인데 본초라는 말이 원초라는 말이다. 본래 처음부터 부처였다는 말로 어느 시점에 이르러 부처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는 〈법화경〉의 대의 구원실성(久遠實成)을 뜻하는 말로 대통지승여래나 일월등명여래 등과 같이 명호를 달리하여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부처님이다. 위음왕불은 최초의 부처님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위음나변(威音那邊)' 이라는 말은 선가에서도 써온 말인데 공겁이전(空劫以前)이란 뜻으로 위음왕불이 출현하기 이전이란 말로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과 같은 뜻이다.

위음왕불이 사성제, 십이인연, 육바라밀 법을 설했다 하였다. 이른바 삼승(三乘)의 권교법문(權敎法門)을 근기에 따라 설했다는 것이다. 이를 밝힌 이유는 〈법화경〉의 대의인 회삼귀일(會三歸一)의 뜻을 천명하기 위해서이다. 불교 공부의 처음과 중간은 대부분 삼승법을 배운다. 교리는 이해하는 것이고 수행은 실천하는 것으로 해행(解行)이 갖춰져야 수행의 지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법화경〉의 일승법(一乘法)인 실교(實敎)가 삼승법(三乘法)인 권교(權敎)를 결코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권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실교에 나아가라는 것이다.

이 장(章) 내용이 특이한 점은 위음왕불이 같은 명호로 계속 출현하여 2만억 부처님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홀로 부처가 아닌 다수 부처란 말이다. 이 역시 부처의 영원성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나타낸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천태지의의 〈법화현찬(法華玄贊)〉에는 "여러 부처님에게 위음왕이란 동일한 명호를 붙인 것은 〈법화경〉을 설하는 부처님 음성이 왕처럼 존귀하고 뛰어나 큰 위세를 가지고 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큰 이익과 즐거움을 얻도록 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보살 마음 번뇌에 물들지 않아야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㉙ 보살계의 실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대승 경전에 설해진 보살계가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이다. 때로는 장밋빛 희망이 잿빛 절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보살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 한두 번의 좌절이나 실패에 주저앉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거듭된 실패로 무력감에 빠질 때마다 자신의 결심을 되새겨야만 언젠가 자신의 최종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패배감에 젖어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것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살계, 특히 유가계(瑜伽戒)에서는 보살의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감각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까닭에 보살은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야만 하는데, 그 결심을 밖으로 드러내는 절차가 수계(受戒)일 것이다. 다시 말해 보살로서 살아가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다른 이에게 표명함으로써 보살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중기 대승 경론에서는 스스로 맹세해서 보살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보살계를 받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아마도 대승불교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승 보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가계에는 계를 주고받는 의식작법이 갖추어져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보살계갈마문(菩薩戒羯磨文)〉이다. 이 문헌은 현장(玄奘)이 한역한 〈유가론(瑜伽論)〉의 보살지(菩薩地)에 나오는 보살계의 수계작법(受戒作法)을 발췌한 것이다. 이 문헌은 세 부분, 즉 수계갈마(受戒羯磨), 참죄갈마(懺罪羯磨), 득사차별(得捨差別)로 구성되어 있다.

수계갈마에서는 보살계를 주고받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재가이든 출가이든 삼취정계(三聚淨戒)를 받으려는 보살은 큰 서원을 일으키고 나서, 공덕을 갖춘 뛰어난 보살에게 세 번을 청한다. 계를 주는 보살은 계를 받는 보살에게 법을 설하면서 보살계를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불상 앞에서 묻는다. 계를 받는 보살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이를 세 번 반복한다. 그리고 이것을 불상 앞에서 세 번 보고하고, 증명해주기를 원한다.

그런 다음에 율의계(律儀戒)인 4가지 타승처법(他勝處法)과 43가지 범계(犯戒)가 설명된다. 여기서 타승처법은 바라이(波羅夷, ⓢpārājika)라고도 한역하는데, 보살이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중죄(重罪)이다. 이런 까닭에 부파의 율장에서는 중죄인 4가지 바라이를 범하면 교단에서 추방되었다. 반면에 보살계에서는 중죄인 4가지 타승처를 범하더라도 다시 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공덕을 갖춘 뛰어난 보살을 만나지 못한다면 불상을 향해 스스로 보살계를 받을 수도 있다.

참죄갈마에서는 참회하는 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만약 계를 범했다면, 보살은 반드시 참회해서 죄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그의 마음이 다시 청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살이 다른 이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는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은 번뇌에 물들어서 청정해질 수 없을 것이다.

득사차별에서는 계를 버리는 경우는 2가지라고 설한다. 첫 번째는 무상정등보리(無上正等菩提)의 서원을 버리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상품전(上品纏)으로 타승처법을 범한 경우이다. 또 일단 계를 받는다면 죽은 후에도 계속되며, 다른 생에서 거듭 받아도 그것은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⑤ 괴로운 이 세상 어떻게 살까요?

괴로움 원인, 충족되지 않는 갈애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불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인간의 괴로움은 탄생의 괴로움, 늙고 병듦의 괴로움, 그리고 죽음의 괴로움 등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네 가지 근본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애별리고(愛別離苦)의 고통과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원증회고(怨憎會苦)의 고통이 있습니다. 또 몸과 마음이 항상 욕망과 번뇌를 일으켜 심신을 괴롭게 하는 오온성고(五蘊盛苦)의 고통도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는 구부득고(求不得苦)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을 인생의 8가지 근본 괴로움이라고 불교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어찌 인간의 고통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윤회하는 삶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갈애

불자 여러분!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갈애(渴愛) 때문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 가지 세계 중에서 욕계에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욕망이 주원인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욕망과 욕구들을 통틀어 '갈애'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얻고자하는 욕망이 끝없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재물, 권력, 명예 그리고 편하고자 하는 욕망, 성적인 욕망, 식욕에 대한 욕망 등 이러한 욕망은 인간의 다섯 가지 근본 욕망입니다. 이 외에도 인간은 크고 작은 많은 욕망 속에서 그 욕망을 이루고자 끝없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러한 본능적 모든 욕망을 통틀어 '갈애'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갈애가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워하며 고통에 빠집니다. 그래서 갈애를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8苦 등 수없이 많은 괴로움을 기다려
갈애 원인은 세상에 대한 사견(邪見)때문
마음의 장애 인한 '無明'으로 괴로움 겪어

갈애의 원인인 사견(邪見) 때문

불자 여러분! 인간에게 이 갈애가 생기는 원인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릇된 사견(邪見) 때문입니다. 잘못된 견해 즉 사견이란 첫째는 자기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견해입니다. 이것을 '유신견(有身見)' 또는 '아견' 이라고 말하는데, 이 몸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몸의 감각기관이 인식하는 바깥 대상 세계가 실제로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견해인 '법견(法見)' 이 있습니다. 이 아견과 법견은 모두가 잘못된 사견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몸과 마음 그리고 바깥 경계인 일체 세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으킨 그릇된 견해를 모두 사견(邪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와 마음의 장애는 무명(無明) 때문

불자 여러분! 이 사견이 왜 생기냐 하면 무지(無知)에서 생깁니다. 무지란 말은 '모른다' 는 것인데, 왜 모르냐 하면 마음의 장애로 인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장애는 왜 생기느냐 하면 무명(無明) 때문에 일어납니다. 결국 이 무명 때문에 마음의 장애가 일어나고, 마음의 장애 때문에 무지가 생겨나고, 무지로 인해 사견이 생기며 사견으로 인해 온갖 욕망인 갈애를 일으키고, 그 갈애가 충족되지 않아서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